

#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배 문 조(경북대학교 강사) · 김 미 성(경북대학교 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효의식을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구학적변인, 부양의식, 부모친밀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에 되새겨어가는 효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현대인에게 맞는 효의식 함양 및 가족주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지역의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331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효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성규탁(1994)의 효척도 12문항을 이용하였고 가족주의가치관은 옥선화(1986)의 척도를 기초로 이은경·한경순(1999)에서 사용한 척도로 가족우선성 3문항, 부계가족영속화 4문항, 부모공경의식 2문항, 가족유대의식 3문항으로 총 12문항이다. 부양의식은 이은민(1995)과 김용순(2001)을 참고로 한 척도로 경제적 부양 5문항, 정서적 부양 5문항, 서비스 부양 5문항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친밀감은 임춘희(1987), 유은희(1990), 송현애(1986)등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로 총 10문항이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계수, t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효의식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효도를 희생, 애정, 동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희생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학생은 부모에 대한 애정과 동정 때문에 효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3세 이하보다 24세 이상인 사람들이 효도를 가족영속, 가족화합, 이웃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부모에 대한 동정 때문에 효도를 한다고 하는 항목에서는 23세 이하가 24세 이상보다 높았다. 둘째,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족우선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부양의식 및 부모친밀감이 높을수록 가족우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계가족영속화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부계가족영속화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양의식 및 부모친밀감이 높을수록 부계가족영속화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공경의식에서는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부모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모공경의식이 높았고, 가족유대의식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효의식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보다 정서지향적인 효의식을 보여주고 남학생은 행동지향적인 효의식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효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각 대상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결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부모와 보다 애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공감형성과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